

보 도 자 료

Mr.	대한민국 대전환
7	한국판뉴딜

			_		
보도일시	7. 1.(목) 오전 10시 30분 이후 보도	랍니다. 총 3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21. 7. 1.(목)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담당과장	강동진(044-203-2231)	담 당 자	사무관 이동준(044-203-2234) 사무관 이지원(044-203-2233)		

문화·예술·체육·관광업계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하반기 경기 활성화 위해 2차 추경 3,007억 원 편성

- 문화예술·체육·관광 고용지원 및 영화·체육 등 소비할인권 지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신속한경기회복을 위해 2021년 제2차 추경 예산 3,007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피해가 컸던 공연·예술·관광·체육업계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지원 및 영화·프로스포츠 관람 소비할인권 등 1,507억 원 규모의 사업 예산과함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1,500억 원을 확보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의 재원을 확충하는 기금 변경안을 포함하고 있다.

예술·관광·체육 채용 지원 등에 1,023억 원 투입, 일자리 약 27,740명 지원 예정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예술 창작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예술인 창작준비금을 확대 투입(272억 원)하고, 공연예술 인력 지원(115억 원) 및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확대, 소규모 대중음악공연 개최 지원 등으로 침체된 공연업계 활성화에 가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여행업계 전문인력 채용 및 공유공간 지원(151억 원), 관광지 방역 지원(252억 원),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134억 원) 사업을 통해 점차 활력을 되찾고 있는 관광·체육업계의 조속한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 고용 지원 및 피해 극복 사업(안) >

사 업	내 용	2차 추경(안)	수혜인원
예술인 창작준비금	저소득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272억 원	9,000명
공연예술 분야 인력 지원	연극·뮤지컬·음악·국악·무용 분야 인력 지원	115억 원	2,000명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우수 공연예술 창작·개최 지원(30개 단체)	30억 원	5,940명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 개최 지원(400팀)	39억 원	1,200명
소규모 대중음악공연 활성화	소규모 대중음악공연(인디공연 등) 개최 지원	30억 원	3,000명
여행업 경쟁력 강화	다지털 전문인력 채용 및 공유공간 지원	151억 원	1,600명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관광지 방역 관리 및 점검 인력지원	252억 원	3,000명
민간실내체육시설 고용 지원	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 등 고용지원	134억 원	2,000명

* 예술인창작준비금·공연예술인력지원·대한민국공연예술제·문화가있는날·체육시설 고용 지원은 증액사업으로. '21년 기존 사업(1차 추경 포함. 총 1,900억 원) 추진상황 등 고려해 확대

영화·체육·관광 소비 및 문화향유 확대에 484억 원 투입, 341만 5천 명 혜택

문체부는 하반기 내수활성화와 국민 일상회복을 위해 영화 관람(100억 원, 167만 명), 민간체육시설이용(124억 원, 40만 명),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77억 원, 100만 명), 국내 관광 교통 할인(42억 원, 14만 5천명) 등 소비할인권을 추가 편성할 예정이다. 또한 통합문화이용권을 추가 발행(141억 원, 20만 명)해 저소득층의 문화여가 소비 지원을 확대한다.

내 용	2차 추경(안)	수혜인원
영화 1인당 6천 원 할인쿠폰 제공	100억 원	167만 명
실내체육시설 월 이용권 구매 시 3만 원 횐급	124억 원	40만 명
	내 용 영화 1인당 6천 원 할인쿠폰 제공 실내체육시설 월 이용권 구매 시 3만 원 환급	

100만 명

14만5천명

20만 명

77억 원

42억 원

141억 원

< 소비촉진·문화향유 사업(안) >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 | 0구축구농구배구 등 프로스포츠 관람권 50% 할인 |

국내관광(안전여행) 캠페인 | 캠페인 기간 국내 여행 교통비 할인(철도·버스)

통합문화이용권

* 민간체육시설이용활성화·통합문화이용권은 증액사업, '21년 기존사업(1.441억 원) 추진상황 등 고려해 확대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1인당 10만 원) 발급

이는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그동안 축적된 가계 소비 여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추후 백신접종률과 방역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발행·사용이 일시 중단된 기존 소비할인권(약 676만 장)*도 재개 여건을 고려해 신규 소비할인권과 함께 신속하게 집행해 경기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 기존 소비할인권 재개(안): ▲ 숙박 193만 장, ▲ 공연 175만 장, ▲ 전시 345만 장, ▲ 체육시설 60만 장 등

방역 안전에 기반한 관광업계 회복 지원을 위한 관광기금 재원 확충

또한 문체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1,500억 원을 확보해 관광기금의 재원을 확충한다. 관광사업체 융자 및 고용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의 기반인 관광기금은 최근 출국납부금 감소로 인한 수입 급감과 관광업계 회복을 위한 지출 확대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다. 문체부는 이번 추경 으로 추가 자금 1,500억 원을 확보한 만큼, 방역 안전에 기반한 관광 생태계

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관광업계를 지원하고,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시행 등 과련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업계 회복 기여

정부 전체 차원의 추경안에는 희망회복자금 사업 등 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포함된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사업 역시 소상공인·소기업이 많고 매출 감소 등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문화·체육·관광 분야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2차 추경 예산안으로 문화·예술·체육·관광업계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는 사업과 함께 문화 여가 소비 확대를 포함한 경기 활성화 사업을 준비한 만큼, 신속하고 완전한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소비할인권 등 내수 촉진을 위한 사업은 백신 접종률과 방역상황을 고려해 안전하게 시행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사무관 이동준(☎ 044-203-2234), 사무관 이지원(☎ 044-203-223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